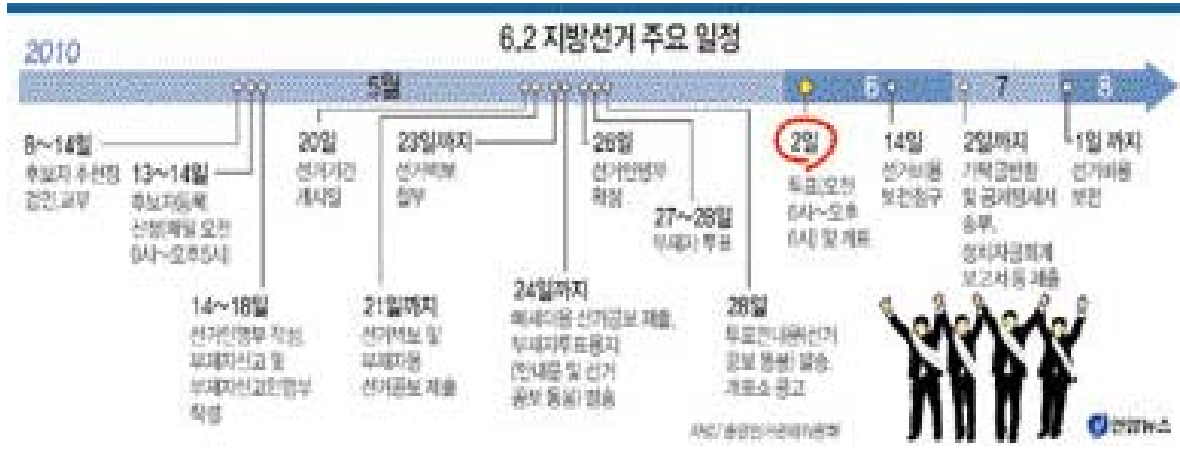


6·2 지방선거

D-30...관전포인트



6·2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민주당을 바라보는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 민주당의 부실한 경선 관리로 광주·전남 곳곳에서 후유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무능과 오만'으로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 '반 민주당 정서'가 확산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 민주당 경선후유증 파장은

민주당의 경선 관리 부실은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로 꼽히고 있다. 광역단체장 경선에서부터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경선에까지 나타난 부실 경선은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특히, 부실한 경선 관리로 '후보만 후폭풍 상당할 듯 민심 이반 불가피' 내면 당선될 수 있다'는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민주당의 오만한 자세에서 비롯됐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 여론 일각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시원치 않다면 차라리 여당인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평화민주당 등은 후보만 잘 낸다면 선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2 무소속·반민주 연대 파워?

정권 창출에 실패했음에도, 민주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광배함에 따라 무소속 연대 혹은 반민주 연대에 상당한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전남지역에서는 나주, 화순, 강진, 신안, 해남, 진도 등 서부권 벨트와 순천, 여수, 광양 등 동부권 벨트에서 무소속 및 반민주 연대가 현실화되면서 물풍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현제도 최소 10곳 안팎에서 무소속 혹은 반민주 연대가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후보 등록(13~14일)이 마감되면서 무소속 연대가 가시화되는 한편, 민주당을 제외한 무소속 후보와 군소 야권 후보들과의 후보 단일화도 잇달아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3 한나라 득표율 얼마나 나올까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면서 한나라당 후보들의 득표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나라당 후보들이 적어도 두 자릿수 득표율을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특히,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상당 부분 약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대 득자릿수는 확실 20% 육박 전망도

에 육박하는 지지율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관세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응화 광주시장 후보와 김대식 전남지사 후보가 현직 대통령의 측근으로 실세인 점을 적극 활용, 현실적인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른바 '힘있는 여당 후보론'으로 민심을 움직인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인재난으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4 참여당·평민당 뿌리 내릴까

노무현 정권 계승을 내세운 국민참여당과 김대중 정권 계승을 주장하는 평화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느냐도 관심사다. 현재로서는 참여당과 평민당 모두 조직이나 자금, 인제 등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신생정당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뿌리 내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경선 탈락자 盧 추모 바람 기대

하지만, 국민참여당의 경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5.23)를 맞아 광주와 전남에서 노풍이 불고 참신한



휴일 없는 선거준비 제5회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2일 광주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휴일도 반납한 채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역민심 이반 심상찮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확정 지지부진 “당 리더십 부재” 비난속 의혹 확산

민주당이 광주시장 후보 경선이 치러진지 20여일이 지나도록 후보 확정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정치적 루머가 난무하는 것은 물론, 지역 정치권의 분열 및 반목이 이어지고 민심 이반까지 겹치면서 지역 분위기는 건드러질 듯 터질 것처럼 심각한 상황이다. 2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대한 재심 결과 공개를 늦추면서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치적 배경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민주당 재심위는 지난달 28일 광주시장 후보 경선 불법 여론조사 논란과 관련, 비공개 투표를 통해 최고위원회에 넘겼다. 그러나 최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심위의 비공개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3일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재심위 투표 결과를 공개를 미루고 있다는 설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후보 등록일(13~14일)을 코앞에 두고 막판에 광주시장 후보 확정 문제를 매듭지어 반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남지사 후보 경선이 무산된데 이어 정치적 상징성이 큰 광주시장 후보 확정 문제가 지연되면서 각종 루머가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정말 어떻게 지방선거를 치르려는지 알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3일에도 재심위 결과 공개 등을 통해 광주시장 후보 확정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다면 부실한 경선 관리에 따른 후폭풍과 맞물려 광주·전남지역에서 반 민주당 정서가 크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 국회의원들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 3일 최고위에서 재심위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광주시장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장 후보 확정이 20일 이상 지연되면서 지역 민심의 분열과 지역 정치권의 반목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선 의원은 “광주시장 후보 확정이 지연되면서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며 “3일 최고위에서 재심위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논의를 통해 광주시장 후보를 빨리 확정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유선호 재심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지난 28일 광주시장 후보 재심 기각 및 수용 여부에 대한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최고위의 투표 결과 공개가 재심위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재심위원장이 최고위 직전 당 대표실에서 직접 실시한 경선 관리에 따른 후폭풍과 맞물려 광주·전남지역에서 반 민주당 정서가 크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 국회의원들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 3일 최고위에서 재심위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광주시장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장 후보 확정이 20일 이상 지연되면서 지역 민심의 분열과 지역 정치권의 반목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선 의원은 “광주시장 후보 확정이 지연되면서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며 “3일 최고위에서 재심위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논의를 통해 광주시장 후보를 빨리 확정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유선호 재심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지난 28일 광주시장 후보 재심 기각 및 수용 여부에 대한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최고위의 투표 결과 공개가 재심위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재심위원장이 최고위 직전 당 대표실에서 직접 실시한 경선 관리에 따른 후폭풍과 맞물려 광주·전남지역에서 반 민주당 정서가 크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광주고·지법 선거재판부 구성

6·2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원이 본격적인 지방선거체제를 가동한다. 법원행정처는 3일 대법원에서 광주·지법 등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 선거법외 전담재판장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법에 대한 신속한 처리방안과 적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광주·지법에서는 각각 장병우 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와 정창호 지법 형사 4, 5부 부장판사가 참석해 신속한 재판진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선거범죄 사건이 배당되면 곧바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해 일주일에 최소 1회 공판하고 변론종결 뒤 14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한 대법원 예규를 철저히 지키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고법은 재판장인 장 판사와 판사 2명이 선거관련 재판을 전담하고 있다. 광주지법은 6·2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22일 법관 인사에서 형사 4, 5부를 선거전담재판부로 꾸렸다. 광주·지법은 선거가 임박할수록 선거사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선거관련 재판에 임할 방침이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휴일 없는 선거준비 제5회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2일 광주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휴일도 반납한 채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